

72. 너희들의 기대로 나는 얼룩을 제거하고 있어... 찬양을 통해 나에게 오거라.

2015.05.11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나의 신부야, 나는 너에게 정말 많은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있어.

(클레어) 오 예수님, 저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해요. 이 세상은 너무나 불완전한 곳이고 제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저를 더 이상 완전하게 만들지 못해요.

(예수님) 너가 무엇을 느끼는지 알고, 너는 큰 인내심을 연습하고 있어.

(클레어) 예수님, 저는 주님을 갈망해요.

(예수님) 나도 너를 갈망해. 너는 매일 내가 나의 신부와 떨어짐으로 겪는 고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해. 우리는 둘다 이 이별로 고통받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 사이에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

(클레어) 이것은 정말로 도움이 되요.

(예수님) 이것은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해. 너가 상당히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할만큼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만으로도.

(클레어) 오 주님, 저는 주님을 더 원하고 다른 것들을 덜 원해요. 하지만 저는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 너가 그들에게 편지를 쓸때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몰라? 너가 나를 위해 그들에게 조언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머리를 나의 생각들로 채우는 것을 몰라?

(클레어) 저는 눈물이 흐르고 감정이 폭발했어요.

오 주님, 저는 여기에 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예수님) 내 사랑아 곧이야.

(클레어) 제가 왜 이렇게 느끼는 것일까요?

(예수님) 왜냐하면 그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너에게 너의 마음과 너가 얼마나 나를 갈망하는지를 조금 볼 수 있게 하였어. 만약 내가 너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면 너는 그 자리에서 죽을 거야.

(클레어) 그것은 그렇게 나쁜일이 아니지 않아요?

(예수님) 너에게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클레어) 오 예수님, 저는 다시 마음이 아파요.

휴거가 거의 임박하였음을 저희가 깨달으면서 주님께서 저희를 단계적으로 완전함으로 인도하고 있으세요. 저희 모두는 육체를 극복하는 것에 점점 더 진지해지고 있어요. 지난 12개월동안 3번의 심각한 경고가 있었고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지구에 있어요. 주님께서 저희를 잘못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절대로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 안에 여전히 극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 저희를 인도하세요. 저희가 휴거를 위해 저희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저희들의 기도방에 들어가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육체를 다스릴때마다 저희들의 웨딩 드레스는 더 많은 얼룩들이 사라지고 깨끗해져요. 이것은 주님께서 언젠가는 훈련이 아니라 실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과 거의 같아요.

(예수님) 너가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맞아. 그것이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야. 왜냐하면 각각의 모든 단계는 진정으로 기꺼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얼룩을 가져오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은 그 여정을 따라갈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것이 신부들과 신자들을 구분하는 것이야. 나는 둘다 사랑해. 하지만 신부들은 그들의 마음으로 나를 쫓고 나는 그들에게 나의 임재로 보답해.

내가 언제 가냐고? 어느 순간이든지. 이 중 하나는 훈련이 아니라 진짜가 될 거야. 나는 나의 연인들 각자가 얼마나 순종하는지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드레스에서 많고 많은 얼룩들이 사라지게 될 거야. 그래도 모든 얼룩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들이 표면화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들어올릴 수 있어. 이 과정에서 나는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노력하려는 확고한 목적성을 봐.

나의 신부들이 완전해지기를 원하고, 깨끗하게 씻겨지기 원하고, 그들의 잘못과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의로 그들에게 돌리고, 내가 그들에게 갔을때 그들이 완전히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헌신이 대신하여 그들의 드레스는 흠이 없는 드레스가 되어져. 이해하겠어?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해. 나는 그들이 순종으로 나에게 응답할때 나는 나의 일을 하고 그 얼룩들을 제거해줘. 이것은 성화의 신비의 일부야. 오 클레어, 나는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해.

그리고 다양한 수준이 있어. 즉, 어떤 사람은 20가지 재능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오직 1가지 재능을 받았음으로 나는 받은 재능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심판해. 그렇기 때문에 1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수도 있지만 그 1가지의 재능으로 열심히

일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재능을 받고 그것들을 사용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한 것으로 보이게 될 거야. 오 내가 나의 신부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너의 노래는 매우 감동적이야. 매우 감동적이어서 그 노래를 통해 많은 마음들이 나에게 왔어. 내 사랑아 고마워. 나에게 영광과 영예를 가져다주고 나의 신부들을 완벽에 훨씬 더 가깝게 만드는 이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그들이 찬양에 빠져들때 그들의 사랑의 불이 그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밖으로 찌꺼기들이 나와. 그들이 찬양에 더 많이 머물러있을수록 더 많은 찌꺼기들이 표면으로 올라오고, 그들은 더 많이 그들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나에게 자기자신을 내려놔. 그래서 나는 영혼들이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것을 선호해.. 나는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문에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들의 궁정에 들어가. 이것은 찬양을 분명하게 해. 그들의 영혼의 본질이 나에게 닿고 신성한 결합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가되.

삶의 전체의 목적은 나를 아는 것, 나를 섬기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지시는 찬양 안에서 밖에 인식하지 못해. 찬양 안에서 그들은 나에게 자기자신을 주었고 나는 나의 사랑으로 그들을 꺼안아. 이것은 나와 친밀해지는 최고의 방법이야.

그래서 나는 너가 이것이나의 마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기를 바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 한 일들에 감사해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자들, 제자들, 신부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감사함은 슬프게도 모두에게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큰 축복들을 보류하는 거야. 왜냐하면 작은 축복들이 인정받고 감사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야. 이것은 나의 마음으로 가는 또 다른 비밀의 길이야.

나는 나의 신부들이 내가 그들에게 준 선물들에 기뻐하는 것을 듣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 불평은 그것과 매우 반대야. 기름부음을 받은 기도에도 굴복하지 않는 질병을 내가 허용하였다면, 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인 그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나의 십자가를 조금 짊어지라고 요청한 거야. 이것은 금식 공물만큼 정말로 귀한 것이기때문에 내가 너에게 금식을 거의 요청하지 않는 거야. 너는 날마다 많은 고통을 짊어지고 있어.

너가 젊었을 때에는 일주일마다 많은 금식을 하였지만 이제 너는 다른 방식으로 너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의 약간의 일부를 짊어지고 있어. 이 역동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해. 오, 만약 그들이 그들의 고통들이 얼마나 나에게 가치가 있는지를 안다면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도착하면 지구에서의 삶에서 그들의 고통을 통해 유익을 얻은 사람들로 부터 큰 환영을 받을때 놀라워할 거야.

(클레어) 십자가를 지는것.. 여기서 저는 저희의 책인 'Chronicles of the Bride(신부 연대기)'의 내용 중 일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는 저희에게 알려지지 않고 구원받은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의 제목은 'Graces dispensed on your Behalf(너희들을 대신하여 분배된 은혜들)'이에요. 이 이야기의 링크는 이 유튜브 동영상의 아래에 있어요.

(예수님) 오늘 밤에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말은 굳건히 서서 나의 거울을 보고 너희들의 결점들과 육체에 맞서서 얻은 땅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거야. 그 땅을 붙잡아라, 이것은 매우 귀중해, 뒤로 돌아가지 말아라, 너희들의 신앙이 늦어진다고 해서 흥청망청하지 말아라. 오히려 남은 것들을 지키고 육체와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전진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거야.

나는 언제든지 나의 부름을 기다리며 굳건히 서서 기다리는 인내로 너희들을 축복하고, 잘하는 중에 지치지 말아라. 너희들이 천국에 왔을때 너희들은 지구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었으면 하고 생각할 거야. 나의 신부들아, 그리고 이번주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세상이 너희들의 생각과 삶에 어떻게 차지하였는지를 점점 더 인식하기 바래.